

2. 사랑 Love

요한복음 21장 15-17절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예수님 :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는 대화한다기보다 같은 말은 반복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번역할 때 놓치는 것

자신의 본국 문화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섬기는 선교사들 보다 번역할 때 뭔가를 놓쳐버리는 경험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한 선교사들은 개념 자체가 없거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주 적은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영어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시작에는 사랑에 대해 서로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마지막 세번째 대화에서 그들은 사랑에 대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에서 우리는 “나는 햄버거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위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때론 다른 문화들은 그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더 풍성한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과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다른 측면들이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어도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세가지 차원

1980년대에 로버트 스텐버그(Robert Sternberg) 심리학자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연구하기 위해서 복잡한 통계 절차인 요인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문장들 속에서 여러 다른 방법들로 사용되어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분석한 다음에 그는 사랑에는 세가지 주요한 다른 차원들이 있음을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결정·서약, 친밀함, 그리고 열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한 헬라어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위해 다양한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 합일점을 이루지 못한 부분입니다. 스텐버그가 몇 년전에 ‘발견한’ 것을 묘사해주는 헬라어의 세 단어는 아가페, 필레오, 그리고 에로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2000년 전에 사랑의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가페(결정/ 서약) Agape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하고 첫번째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가페 단어를 사용하는 성경구절들을 찾아보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하나님은 사랑하신다(아가페).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 예수님은 사랑하신다(아가페). 요한복음 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아가페)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도록 명령하신다(아가페). 요한복음 13:34, “내가 너희를 사랑(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아가페)하라.”
- 죄인들도 사랑할 수 있다(아가페). 누가복음 6:32, “죄인들도 사랑(아가페)하는 자는 사랑(아가페)하느니라.”
- 악한 사람들도 사랑한다(아가페). 요한복음 3:19,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아가페)한 것이니라.”
- 데마는 사랑했다(아가페). 디모데후서 4: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아가페)하여 나를 버리고.
- 아가페 사랑은 ‘사랑’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아가페)은 오래 참고, 사랑(아가페)은 온유하며...”

물론, 아가페는 신약성경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아가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선택하는 것과 그 선택에 대해 서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통적인 결혼 서약은 아가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결혼 서약은 “기쁠때나 슬플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 죽음이 서로를 나눌 때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나를 성적으로 흥분시킬 때까지만이라든지, 내가 당신을 좋아할 때까지만 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에 대한 묘사는 조건없는, 신중한, 정절, 돌보는, 결심, 신실한, 지적인, 그리고 마음의 같은 단어들 포함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지적인 부분인데, 이 안에서 각 개인들은 인생의 동반자에게 자신을 내어 줄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싱글 선교사들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권유받고 있습니다 .

필레오(친밀감) Phileo

요한복음 21:1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가페 대신에 “필레오”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필레오를 사용한 성경 구절들을 다시 고찰해 보는 것이 필레오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하나님은 사랑하신다(필레오). 요한복음 5: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필레오)하사.”
-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필레오). 요한복음 11:3,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사랑(필레오)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 사람들이 사랑한다(필레오). 요한복음 16:27, “너희가 나를 사랑(필레오)하였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필레오)하심이라.”
- 사람들이 사랑한다(필레오). 로마서 12: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에게 헌신하고.”
- 사람들은 너무 많이 사랑(필레오)할 수도 있다. 마태복음 10:37,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필레오)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사랑(필레오)할 수도 있다. 디모데전서 6:10, “돈을 사랑함(필레오)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물론 필레오가 신약 성경에서 더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필레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은 우리가 가까운 친구관계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오늘 펜실베이니아 주 안에 있는 도시이고, 신약 시대때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헬라어로는 형제 사랑으로 번역됩니다.

필레오 사랑의 묘사는 가까움, 유대감, 연결됨, 대화, 지지함, 나눔, 감정들, 그리고 따뜻함과 같은 단어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감정의 부분인데, 이 안에서 각 개인들은 친밀하게(성적으로가 아닌) 나눔을 가집니다. 싱글 선교사들은 서로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권유받고 있다.

에로스(열정) Eros

헬라 신화에서 에로스는 다산의 신으로써 숭배 받는 성적인 사랑의 신이다. 성경에 헬라어로 ‘에로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구약은 이러한 욕욕성을 묘사하는 여러 성애를 다룬 구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잠언 5:18-19,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 아가서 5:4,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 아가서 7:7-8,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 창세기 29:17-21,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동안 섬겼으나,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성적인 (에로스) 사랑의 묘사는 성적 흥분, 만지기, 뜨거움, 육체의, 애무, 구강 성교, 그리고 성교와 같은 단어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성적인 관계로 이끄는 성 동기 유발 부분입니다.

현대 영어는 ‘영혼을 향한 열정’과 같은, 사람을 이끄는 강하고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말할 때, ‘열정’을 사용합니다. 선교사들은 이것을 표현하도록 촉구받습니다.

아가페 & 필레오(서약 & 친밀감)

싱글 선교사들은 아가페와 필레오 두 사랑으로 각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권유받고 있다. 구약에 있어서 헬라어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관계는 이 두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구절 안에 밑줄 거진 단어들을 주목해 보라.

- 아가페 : 사무엘상 18:3,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 아가페 : 사무엘상 20:17,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 필레오 : 사무엘상 18:1,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 필레오 : 사무엘상 20:42, “우리가 서로에게 우정을 맹세하였다.”

때때로 성경은 아가페와 필레오를 사실상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회당과 시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마23:6, 눅11:43).

에로스 & 필레오(열정 & 친밀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만약 한 커플이 필레오 사랑을 갖고 있거나, 서로를 좋아하거나, 서로가 친구일 때, 에로스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한다면(필레오) 성관계를 갖는 것을 용납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간음이나 성적 부도덕으로 부르는 것에서 오는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 문화는 이것을 혼전 성관계라고 부르고 있다. 싱글 선교사들은 이러한 성적 행위를 삼가야 한다.

에로스 & 아가페(열정과 서약)

만일 한 남녀가 아가페 서약 즉 결혼을 했다면 에로스 사랑은 받아들여지지만 그들은 더 이상 싱글 선교사가 아니다! 에로스 사랑이 죄는 아니지만 에로스 사랑이란 별 의미가 없다. 스텐버그(Sternberg)는 이것을 얼빠진, 어리석은, 바보같은 사랑이라고 부른다. 필레오 사랑이 없는 부부의 결혼은 사귄 것과 친밀감이 결여된 공허한 사랑이다.

아가페, 에로스 & 필레오(서약, 열정, & 친밀감)

위에서 말했지만 에로스 사랑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너무 좋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싱글 선교사가 아니다. 이 세가지 종류의 사랑의 조합은 모든 결혼한 부부들을 위한 최고의 목표다. 이러한 부부들을 위한 도전은 결혼 생활에서 이 세가지 종류의 사랑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